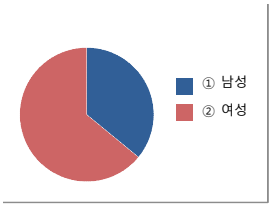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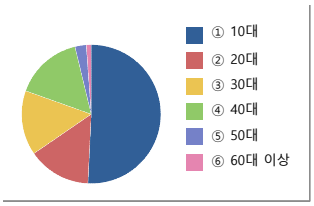
「88 올림픽과 서울」 설문조사 결과 - 설문응답자 267명(만족도 97.8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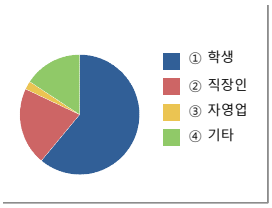
1. 성별	
① 남성	② 여성
96	17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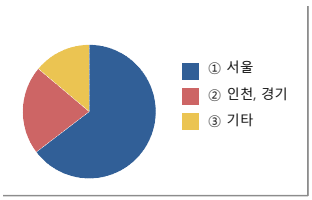
2. 연령					
① 10대	② 20대	③ 30대	④ 40대	⑤ 50대	⑥ 60대 이상
135	39	40	42	7	3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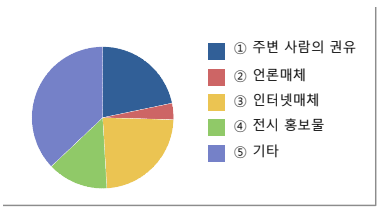
3. 직업			
① 학생	② 직장인	③ 자영업	④ 기타
163	56	6	42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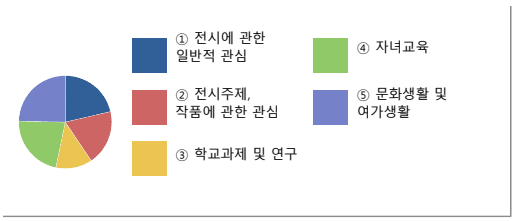
4. 지역		
① 서울	② 인천, 경기	③ 기타
172	57	37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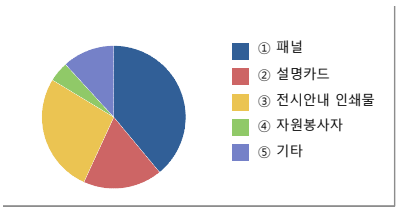
5. 전시에 대한 정보 (※ 복수응답 가능)				
① 주변 사람의 권유	② 언론매체	③ 인터넷매체	④ 전시 홍보물	⑤ 기타
58	10	63	37	99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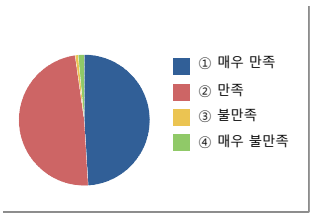
6. 전시를 보러 온 이유 (※ 복수응답 가능)				
① 전시에 관한 일반적 관심	② 전시주제, 작품에 관한 관심	③ 학교과제 및 연구	④ 자녀교육	⑤ 문화생활 및 여가생활
59	53	35	61	68



7. 전시이해에 도움된 방법 (※ 복수응답 가능)				
① 패널	② 설명카드	③ 전시안내 인쇄물	④ 자원봉사자	⑤ 기타
103	47	71	12	31



8. 전체적인 전시 만족도 (*전체만족도 97.8%)			
① 매우 만족	② 만족	③ 불만족	④ 매우 불만족
131	130	2	4
49.1	48.7	0.7	1.5



9. 개선해야 할 점
- 대체로 만족스러웠음.
- 패럴림픽의 역사로 다루었다면 더 Better
- 평면화된 전시... 살작 지루하기도 했어요.
- 오전 일찍와서 전시설명 인력 부족
- 칼기 폭파 사건에 대한 설명
- 이동 동선이 조금 더 자세히 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- 미화만 초점, 비판적 접근 부족
-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웠으나, 올림픽 당시 사용되었던 경기장들의 현재 모습(명과 암)에 대한 궁금적이 남는 전시였습니다.
- 동선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음(연도별 동선이었으면 좋겠음)
- 포스터 채우는 것
- 무언가 심심한 느낌(체험물 부족)
- 도시와 국제 이벤트의 연관성 및 직접적인 영향력에 대한 콘텐츠
- 88 올림픽과 서울이라면 서울의 도시계획적 측면을 더 다뤄주었어야 했다.
- 좋았어요.
- 줄이 너무 길어서 체험관 늘림 필요
- 너무 괜찮아요. 현재도...
- 88 올림픽, 장애자 올림픽, 아시안게임 구분이 어렵다.
- 만족합니다.
-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것 같으니 오래동안 방문하는데 확실히 늘어난 게 보여요.
  영문캡션도 필요해 보여요. 전시기간도 길자나요.
- 더 많은 자료가 있었으면...
- 이런 전시 자주 반복적으로 해주세요.
- 체험할 것이 더 있었으면 한다.

10. 인상적이었던 점
- 단순히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끝냈다가 아닌 그 안에 담겨진 내용과 근대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일깨워준 전시
- 88 올림픽 개최가 6.25직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가슴아픈 역사 속 그날...ㅠ.ㅠ
- 우리아파트가 선수들의 숙소였다는 것을 알아서 기뻤다.
- 인쇄물, 자료가 엄청 좋다!
- 호돌이, 호순이를 봤던 점
- 올림픽으로 이루어진 성과, 좋았던 점 뿐만 아니라 어두운면(상계올림픽, 주거철거)등에 대해서 알게 되었음
- 올림픽이 우리 역사에 어떤 의미인지(부정적 시각)
- 올림픽 당시 초등학생이어서 올림픽에 대한 기억이 없었는데 추억이 새록새록 돋았고 우리나라의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어 의미 깊었다.
- 알쓸신잡 2 강남편에서 유시민 작가님이 언급하신 달동네 철거 이야기
- 전시되어 있는 물건이 멋지고 신기하다.
- 88 올림픽이 제가 중학생 때 개최된거라 잘 몰랐는데 어른이 되어 설명을 읽으니 88 올림픽을 치른 우리나라가 대단하게 생각되네요!!
- 88 올림픽을 통해 서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게되어 흥미로웠습니다. 저에게는 그저 역사에 불과 했던 올림픽이었는데, 전시를 통해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.
- 올림픽 유산 '올림픽이 남긴 것을' 코너의 인터뷰와 일기 자료들
- 88 서울 올림픽 마스코트(호돌이)
- 88 올림픽 때 보거나 올림픽에 대해 알지 못 했던 것을 깨우칠 수 있어 좋았습니다.
- 88, 86 개최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보니 더 흥미로웠다.
- 실제로 겪으셨던 분들의 인터뷰 내용
- 올림픽의 명과 암(특히 상계동) 부분이 언급되어 좋았습니다.
- 88 올림픽 전후의 정치적, 경제적 상황이 알기 쉽게 잘 정리돼 있었습니다.
- 단순히 88 올림픽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올림픽의 개최가 서울의 현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있어 Good.
- 80년대 생활문화를 볼 수 있어 좋았다.
- 요즘 다른 미술전시들이 정체성을 잃어가는게 보여지지만, 이곳만큼은 전시기획/의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
- 1988년 당시 나이 4살 단편적으로 기억에 남았으나 호돌이 만큼은 그리워 다시 찾았습니다.
- 아시안게임/ 올림픽 성공 이면에 있었던 사회문제의 언급
- 전체적인 구성과 디스플레이가 신선했습니다. 포스터도 깔끔했습니다.
- 공간이 만들어진 과정을 사회, 세계사와 함께 전시한 타임라인
- 예전 추억 소환이요.
- 아시안게임
- 우리나라가 메달을 많이 딴 점
- 올림픽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볼 수 있고, 일기며 사진 등을 보는게 그 때 시절로 돌아가서 추억을 되살려 보았어요.
-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
- 올림픽 전의 암과 명 둘 다 다뤘던 것
- 88 올림픽 관련 기획
- 과거의 물건들, 기록, 말죽거리 할아버지의 영상
- 올림픽에서 4위를 했을 때
-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렸다는 점
- 올림픽 영상
- 한국의 이미지 설명, 1988년 일기장
- 엄마 어린 시절 들음
- 경기장면 영상
- 나에게 88 올림픽은? 당시의 사람들 인터뷰하고 자료준비한 것 인상적임. 내가 살았던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이다.
- 영상물, 일기장 내용
- 서울 계발과 우리나라 발전된 모습, 뿌듯하고 벅차요.
- 80년대와 올림픽을 잘 표현(전시) 해낸 것 같다. 우리나라 자랑스러고 아울러 내 어린시절이 떠올랐다.
- 88 올림픽의 이해와 추억
- 그 시대의 일기, 재미있었다.
-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보며 신기했고 좋았다.
- 우리 할머니께서 전시관람에 있기 때문이다.
- 88 올림픽 마스코트
- 88 올림픽 이후의 경제발전 상황
- 올림픽 개최 과정
- 다양한 시청각 자료
- 옛날 생각, 호돌이 색칠하던게 생각나게 함
- 지난 30년, 서울의 놀라운 발전상, 올림픽의 추억이 뽕뽕!!
- 엄마아빠 세대를 잘 알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세상이 발전했다는 걸 느꼈다.
-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. 이 전시전을 보고 역사를 다시 돌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

11. 차후 기획되었으면 하는 전시
- 통일&북한 관련 전시
- 2002 월드컵과 서울
- 우리나라의 스포츠 역사
- 해외도시와 비교. 한국의 전통성 보여주는 건축, 도시 디자인 계획
- 야구역사전시
- 근현대 예술, 문화 관련 전시
- 직장, 놀이공원, 경찰서, 소방서, 학교
- 건축, 경찰관, 소방관 등
- 동계올림픽(평창)
- 남북정상회담
- 평창올림픽 특별전, 월드컵 특별전
- 근현대사에 대한 것, 미래사회
- 과거 어린이들의 놀이 물건, 생활, 동심
- 서울과 국제이벤트
- 서울올림픽 뒤 다른 나라의 올림픽
- 어린이 관련 놀이&시설
- 1980~90년대 생활전시(일기, 교과서 그 시대의 건물 같은 것들) 재미있었다.
- 5.18, 6월 민주항쟁
- 신여성
- 서울시에 있는 유서 깊은 공원의 변천사
- 마포에 대해...
- 강남의 발전 과정
- 서울의 옛날 모습과 연재를 연계하는 내용이 더 많으면 좋겠어요. 시대상을 드러낸 영화 등을 주제로.
- 건축 특집 다시한번?(김수근 건축물만 모아보는것도)
- 서울을 알 수 있는, 재미난 요소를 많이 알 수 있는 전시회
- 압구정 지역의 발전역사, 흥망성쇠